

잡종견에서의 심장이식후 발생한 부정맥의 관찰

부천 세종병원 흉부외과

박국양, 이영탁, 백완기, 정윤섭, 이원용, 서필원, 유재현, 김혁,
박영관, 홍승록, 이영균

부천 세종병원에서는 심장이식팀 구성을 마치고 1993년 3월부터 개심장이식 실험을 계속하여 1993년 7월까지 8례의 심장이식을 실시한 바 있다. 실험의 1차적인 목표는 팀 훈련에 있었으나 2차적으로는 심장이식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맥의 관찰에 있었다.

사용된 동물은 한국산 잡견으로 몸무게 20-25kg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흉골 정중 절개를 통하여 심장을 적출, 이식하였다. 심장보존액으로 중외 심정지액 1호($K^+=15mEq/L$)를 20cc/kg로 사용하였으며 평균 허혈시간은 100min이었다. 그외 일반적인 이식수술수기는 1960년대 Dr. Lower와 Shumway에 의해 기술된 방법과 거의 유사하였다.

이식후 전예에서 Recipient p-wave가 Donor heart rhythm과는 무관하게 관찰되었고, 8예중 2례에서는 이식직후부터 사망시까지 sinus rhythm을, 2례에서는 sinus rhythm 과 nodal rhythm이 겹쳐 나타나고 나머지 4례에서는 sinus rhythm이 아닌 nodal rhythm내지 block이 관찰되었다.